

# 소명, 부르심에 답하라

오스 기니스 Os Guinness

지난 5월, G&M재단에서 주최하여 진행된 오스 기니스 초청 북콘서트, ‘소명, caller를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전 기자인터뷰에서 오스 기니스(Os Guinness이하 Os)를 만났습니다.

@ 통역 채수권 목사 사진 G&M재단 제공 녹취 이종원

## 이 시대의 소명, call을 말하다

**Os Guinness(이하 Os)** 전 세계 기독교의 현주소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시대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종교는 역사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에 사는 지성인들은 종교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함구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무지한 것인지 아니면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종교와 그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중에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생각해 봅시다. 이슬람의

독재, 무슬림들이 정말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급부상, 어떤 종교가 중국의 막시즘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서구의 문화가 기독교 및 유대 종교와의 뿌리를 근절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서구문화를 ‘단절된 생화(生花)’라고 표현합니다. 서구문화의 모든 좋은 생각은 그 원천이 성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자유 등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당연한 개념들을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개념이든 분석해 보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죠. 하지만 서구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러한 뿌리를 모두 단절시키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개념이나 이상들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 가지를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생각합니다. 먼저 믿음(Faith)에 대해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이것이 개인적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모든 문화와 문명 차원에 기초와 원초적인 개념을 제공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인데, 종교다원주의 시대라 일컫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이 시대 우리를 아는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 첫 번째 우리의 소명, call을 말하다

**Os**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내 손으로 이루었다.”고 말하면 끝이다 라고요. 만약 젊고 싱싱하고 돈이 많다면 그런 철학으로 살기에 버틸 수 있을 거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모든 걸 누리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존재의 목적을 찾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내 생명을 다해 바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적을 발견하기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다른 종교는 존재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니까? 동양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적? 잊어버리세요!” 힌두교와 불교는 개인의 목적을 찾기 위해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찾으려는 목적과 욕심을 버릴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종교성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스스로 해라!” 저는 유명한 무신론자인 버틀랜드 러셀(Bertrand Russell)의 제자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는 가끔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세계를 등에 짊어지고 의미를 찾기 위해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 우주에는 목적과 의미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경은 그들과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지를 인생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되어라. 당신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소명(call)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이 당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붙잡을 때 더 높은 경지로 들어갈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목적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 개념과 그 창조 속에 목적이 있다는 성경적 소명관은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장 깊이 있는 철학이나 삶의 목적의식은 오로지 성경적 세계관에서만 나옵니다.

사실상 소명을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공부해야 명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소명(calling)의 ‘call’은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이삭, 야곱 전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의 집단,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무엇보다 최고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Follow me)”고 하셨지요. 이 두 단어가 세계 역사를 바꿨습니다. 제자들은 따르라 말씀하신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서 온전히 이해하기도 전에 그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를 알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라고요. 달리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크리스천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를 따라 살라 하십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다른 이에게 설명할 때 마치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소망을 많은 이에게 가서 전하라. 이 세 가지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첫 번째 소명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소명, call을 말하다**

**Os** 성경은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소명에 대한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의 예화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은 자기 일꾼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는(to the capacity) 달란트를 줍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gift)이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자신이 가장 잘하고 즐기는 바

로 그 일말입니다. 우리 중에 손재주가 좋은 사람도 있고, 친절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선물을 받았습시다. 어떤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리소스(resource), 즉 자원입니다. 사실 자원은 돈보다 포괄적 개념입니다. 가족들을 통해 부여받은 자원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교육, 여러 선생님을 통해 배운 선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나는 다른 환경의 사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자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동역자입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직장 동료, 교회 식구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동역자는 삶 가운데 서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부르심을 아는 데 큰 길잡이가 됩니다.



**소명**

저자 오스 기니스, 역자 홍병룡, IVP, 원제 (The) call : finding and fulfilling the central purpose of your life

이 책은 '생각하는 자는 믿도록, 믿는 자는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올바른 변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따듯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집필하였다. 또한 영적 순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내면의 의문을 직시하고 성실하게 답하면서 신앙을 견고히 하도록 돕는다. 의문이 든다고 단순히 자신의 믿음의 부족을 탓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 논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은 당신이 좀 더 독실하고 성실한 신앙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이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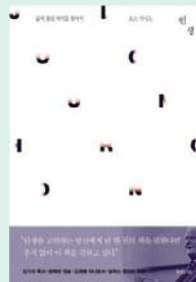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점은 소명(calling)과 인도받음(guidance)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모든 선택에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아무 것도, 어떤 노력도 안 하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환상으로 말씀하신다면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믿음의 선조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경험하고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소명은 창업가적(entrepreneurial)인 면이 있습니다. 비유에서 보면, 주인은 달란트를 준 다음에 바로 떠나 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자가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철저히 묻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 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열심히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시거나 실패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준비했다 하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 주의 얼굴을 마주하게 될 그날에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하십시오. 미리 받은 그 달란트를 지금 사용하십시오.

## 삶 속의 부르심, 세상 문화 속의 삶

Os 제 생각에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목회자들에게 진리와 말씀을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대부분 흔히 실수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경건하게 개인의 삶에는 적용시키지만, 법조인, 언론인, 기업가들의 삶에는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개 목회자들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와 같은 질문에는 대답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무너져 가는 가정에 대한 아픔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이



### 인생

저자 오스 기니스, 역자 박지은, 복있는사람

원제 Long Journey Home: A Guide to Your Search for the Meaning of Life

만족스러운 삶에는 흔히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 사명과 목적에 대한 강한 인식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인식이 바로 그것인데, 처음의 두 요건은 마지막 요건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특히 우리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다. 삶의 소유는 풍족하지만 삶의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어떤 도전을 통해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게 된 사람들, 삶의 수수께끼를 풀기 원하는 사람들, 중요한 것들로 채워진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의미를 추구하는 구도자를 위한 안내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죠. 그렇지만 더 넓은 세속화된 세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회자는 일부러 평신도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당신의 삶을 저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답니다. 이후 무의식적으로 그분의 설교 말씀에 교인들의 삶이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와 신앙을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현실을 좀 가르쳐 줘야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매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알려 줘야 말씀과 삶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서 살라고 하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세상이 무엇이나 물으면 몇몇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적대적인 개념들을 말합니다. 지금의 세상은 상대주의나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지만 저는 오히려 소비주의(consumerism)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권위는 선택에 있습니다. 선호하는 선택 말이죠. 지금의 시대는 백화점을 가든 시장을 가든 슈퍼마켓을 가든 무엇을 하든 선택의 상황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가를 질문하지 않고 내가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 선택권은 무엇일까 질문하죠. 소비주의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선택하는 것을 체질화시키고 있고 따라서 우리의 신학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 복음에 관심 없는 다음 세대를 향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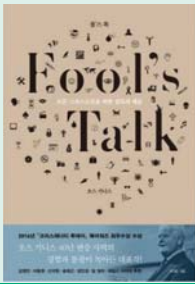
**Os** 지금 전 세계를 둘러싼 이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이슈들은 다음 세대가 성인이



되었을 때 토론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만약 문제의 본질들을 파악하여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에 인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이 질문들에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대답과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복음이야말로 이런 문제와 어려움에 정당하고 합당한 대안이 있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대안들과 해결책은 전 세계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변증이 필요하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증학하면, 이것은 사치스럽다, 지식인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인류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상황과 문화에만 속해 있지 않거든요.

## 다원적 문화 속 기독교적 변증을 말하다

**Os**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개념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이 바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다수가 공유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는 문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특정



### 폴스톡

저자 오스 기니스, 역자 윤종석, 복있는사람, 원제 Fool's Talk

한마디로 『폴스톡』(Fool's Talk)은 오스 기니스 최고의 걸작이자 대표작이다. 사안을 꿰뚫어 보는 눈과 본 것을 쉽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는 기니스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사회문화 비평가다. “소통의 시대”에 “불통”으로 위기에 처한 “기독교 변증”을 구하는 이 책은 소위 “바보 어법”(Narrenrede)을 통해 기독교 안팎에서 널리 활용되어 온 감추어진 지혜를 표현한다. 상대주의와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 “삶에 뚫린 구멍”을 채우려는 영적 갈망과 열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잃어버린 변증의 유산을 되살려 참된 변증으로 비신자로 하여금 이 갈망을 일깨워 주어지는 “초월의 신호”를 알아보도록 돕는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바보의 길”이자 이를 통해 비신자의 마음에 전인적으로 호소하는 “마음의 변증”인 기독교 변증이 전문가나 지식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것이며, “꽂힌 주먹”이면서 동시에 “활짝 편 손”일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한 문화나 아이디어를 따라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증학자들은 사상에만 초점을 맞추며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언급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는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좋은 선교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교사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그들이 살아가고 편하게 여기는 문화를 강조하며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닌데도 말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한국에서 접하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수입된 문화인지 아니면 진정한 기독교인지의 여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쌍방의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극단적으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적 제국주의의 양상을 띠 수도 있고, 반대로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문화에 융화되어 무릎을 꿇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문화권 사이에서 복음을 근시안적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분별해야 합니다. 기독교 변증의 역할이 여기에 있겠지요.

전 세계적으로 다원주의와 다민족이 함께 사는 상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발달과 미디어의 영향 등으로 여행이나 이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 있다’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점과 관련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세계적 상황이 전도를 위한 놀라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슬림들은 소수민족이 되었을 때 가장 열린 사고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국가로서 먼저 한국이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는 자세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위협적인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다문화적인 요소겠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문화를 존중한다면 그들과 그들의 문화가 한국문화에 융화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며 생활하게 허용하는 것은 위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실태를 유럽을 통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럽 지역이 세속화와 더불어 뚜렷한 정체성을 잃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의 유럽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듯이 사람들, 곧 이방인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격하고 외면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거역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우리 주변의 이방 나그네에게 보여 줄 수 있는 건 사랑입니다. 물론 여기서 무슬림의 사상적 자유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지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잘 분별해야 할 부분이 고요.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양심에 따라 생각하는 것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다양한 이론과 논리가 있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개인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종교의 자유라는 개념을 고안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동시에 역사 속에서 타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고 짓밟

고 종교의 이름으로 범행을 자행한 악당도 기독교인이기도 했고요. 중세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종교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어떤 악행을 범했는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황도 교회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격을 많이 받고 피해를 입은 종교 또한 기독교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를 보면 많은 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핍박받은 무리가 기독교인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우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우리가 받은 핍박을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것은 위협합니다. 이것을 경계하면서 동시에 모든 종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르네상스**

저자 오스 기니스 | 역자 윤종석 | 복있는사람  
원제 Renaissance

이 책 『르네상스』의 저자 오스 기니스는 힘주어 그렇다고 선언한다. 무엇보다 그는, 복음의 진리가 삶으로 실천되기만 하면 개인에게든 사회 전체에든 복음이야말로 사상 최고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동안 기독교 신앙은 많은 문화와 문명을 변화시키며 예술과 문학, 과학과 의학, 철학과 사회 정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진리를 예증했고,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다시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대정신에 휩쓸리지 말고 ‘새로운 기독교 르네상스’의 소명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세속화의 깊은 침투에 맞설 것을 주장한다.